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문제에 대한 시론

이경수*

1. 문제제기
2. 논문의 주제: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의미
3.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 수용 전략: 페러디와 현실 비판
4. (탈)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수용 전략: 디지털 서사의 가능성
5.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접속 가능성

국문요약

이 논문은 여성주의 문학의 방법론으로 논의되어 온 여성적 글쓰기와 관련지어 대중성의 문제를 살피려는 기획과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여성적 글쓰기라는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성주의 시에서 대중성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 창작 방법론의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를 여성이 시 쓰기의 주체로서 참여한 시의 글쓰기로 제한하지 않고, 여성주의적 태도가 드러나거나 기성의 제도적 글쓰기에 저항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수사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중성이 지닌 이중적 성격에 주목한다. 해학성, 감상성, 선정성, 관능성, 환상성 등으로 분류되어 온 대중예술의 통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에 대해 비판적·전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질적 변화와 충동이 대중성에 나타난다는 데 주목함으로써 여성적 글쓰기의 대중성 확보의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사례를 보여주는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시를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대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적 특징이 변화된 대중의 성향과 관련되며 기성의 제도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여성적 글쓰기는 주류의 글쓰기에 대한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글쓰기를 형성하면서 대중성과 접점을 형성해 왔다.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이 충돌하고 겹치며 형성해 온 길항 관계는 문학의 위상이 점점 변화될 것이라 예견되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여성주의 시인들에 의해 규정되어 온 '여성적 글쓰기'는 대체로 페라디 등을 통한 풍자적 공격성이라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전략이 공격적이고 전복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분법을 뒤집는 이러한 전략이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분쇄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 유형진, 진은영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들이 추구하는 글쓰기가 앞서의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분쇄하는 '탈'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학의 비선형적이고 양방향적이고 다매체적인 특성은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적 특징과 접점을 형성한다. 이들은 좀더 가볍고 발랄하게 디지털 글쓰기의 '대중성'과 접속하면서 여성적 글쓰기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시가 우리 시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 줄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본다.

주제어

여성적 글쓰기, 대중성, 여성주의 문학, 대안적 글쓰기, 풍자적 공격성, (탈)여성적 글쓰기, 비선형적, 양방향적, 다매체적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여성주의 문학의 방법론으로 논의되어 온 여성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대중성의 문제를 살피려는 기획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주의와 대중성은

쉽게 접속을 시도하기 어려운 거창한 테마이고 화합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성주의 문학과 그 방법론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이론 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맥락과 관련하여 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¹⁾

198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주목받은 최승자를 필두로 한국의 현대 여성시는 '여류시'의 딱지를 떼고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지닌 시로 진일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현대 여성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거대담론의 몰락과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욕망, 일상성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 아래 여성주의 시는 한국 현대시의 쇠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혜순, 김승희, 김정란 등의 시인이 새로운 여성주의 시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론적으로나 창작적 실천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후 이들의 문제의식은 신현림, 박서원, 김언희, 노혜경, 김선우 등에게로 이어지며 문학에서도 여성주의 담론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런데 활발해진 여성주의 담론은 몇 가지 중요한 비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론 중심적이고 강단비평 중심적인 여성주의 담론이 창작적 실천을 압도한다는 우려였다. 극단적인 몸의 탐색으로 나아간 여성주의 문학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이고 평단으로부터도 소외되기에 이른다. 김혜순, 김정란, 김승희 등과 같이 창작과 이론을 겸비한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주의 시에 대한 비평과 이론적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성과물은 대중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물론 대중성으로부터의 괴리가 단지 '여성주의 시'에만 해당하는 문제나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적지

1) 작가와비평 좌담, 「21세기, 문학의 진보성이란 무엇인가?」, 『작가와비평』 2호, 2004.11; 줄고, 「타자성의 맨얼굴」, 『작가와비평』 2호, 2004.11.

않은 우리 현대시가, 특히 실험적인 문제의식을 보이는 아방가르드 계열의 시들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학적 현실임을 감안할 때 어찌면 이러한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성주의 시가 애초에 혁명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시작되었고, 운동으로서의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 대중성 확보에 실패하고 이론적 성향을 강화하게 되는 여성주의 시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성 확보의 실패라는 문제가 단지 남성 독자의 부재에만 해당하는 현상이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른 진단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성주의 시의 소외 현상은 비단 성대결적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 시와 대중성이라는 문제의 접속을 모색함으로써 여성주의 시가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여성적 글쓰기라는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성주의 시에서 대중성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 창작 방법론의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은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되어 온 용어라 함의하는 바가 복잡하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성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이 시 쓰기의 주체로 참여한 시를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사례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가로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를 여성이 시 쓰기의 주체로서 참여한 시의 글쓰기로 제한하지 않고, 여성주의적 태도가 드러나거나 기성의 제도적 글쓰기에 저항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수사적 특징을 보이는 시의 글쓰

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한다.²⁾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여성주의를 좁은 의미의 반(反)남성주의에 가두지 않고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대중성의 확보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성’은 일반적으로 통속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³⁾ 감상주의 적이거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시에 대해 ‘대중성’, ‘통속성’이라는 딱지를 붙여 온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시에 대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이 앞서 말한 의미에서의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여성주의 시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성주의 시가 애초의 혁명적이고 전복적이고 주변적인 성격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성주의 시라 불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주의 시에서 대중성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에서는 우선 대중의 변화가 ‘대중성’의 변화 역시 가져왔다는 데 주목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확장은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중의 성격 변화와 질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 이상 대중은 우매한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소수의 지배 논리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지배 논리에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사회의 변동을 추동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⁴⁾ 이 논문에서는 여성주의 시의 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 확보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부정

2) 일찍이 크리스테바는 여성적 글쓰기와 남성적 아방가르드 글쓰기적 충동을 동일시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성주의 시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선행 연구를 남긴 김승희는 고유한 여성적 글쓰기가 따로 있다는 독단적 분리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64 쪽)

3)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1996, 25쪽; 강현두, 『대중문화론』, 나남, 1994, 18 쪽

4) 윤재근, 『예술과 대중사회의 연관에 관한 연구』, 『한양어문연구』 15 집, 한양어문학회 1997, 654쪽.

적인 의미에서의 통속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달라진 대중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착안하였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대중에게 기성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기성의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 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의 통속적 성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이상에 기대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중성이 지닌 이중적 성격에 주목한다. 해학성, 감상성, 선정성, 관능성, 환상성 등으로 분류되어 온 대중예술의 통속성⁵⁾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에 대해 비판적·전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질적 변화와 충동이 대중성에 나타난다는 데 주목함으로써 여성적 글쓰기의 대중성 확보의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사례를 보여주는 80년대 이후 ~최근의 시를 대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적 특징이 변화된 대중의 성향과 관련되며 기성의 제도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논문의 전제 :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의미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엘렌 식수, 이리가레이, 크리스테바, 해리웨이 등의 이론이 국내에도 소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엘렌 식수의 '메두사의 웃음'은 여성적 글쓰기의 선언문으로 간주되었다. '몸으로 글쓰기'로 종종 이해되는 엘렌 식수의 '여성적 글쓰기'는 '말중심주의'와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⁶⁾ 엘렌 식수가 쓰는 '여성적'이라는

5)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62쪽.

6)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문학』 2001년 겨울호 237~241쪽

말은 종종 생물학적 성차로서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지만, 식수의 '여성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후기로 올수록 점점 사회적 성(젠더)에 의존하게 된다. 전복적이고 체계화를 거부하는 식수의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무의식을 닮은 글쓰기로 전통적인 문학 관습의 파괴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식수의 소설들은 난해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식수의 이론은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일찌감치 부여한 셈이다.

'여성적 글쓰기'는 고정성을 거부하는 '과정의 글쓰기'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지만, 국내에 소개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들은 국내 여성주의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김성례, 김혜순, 김정란 등은 여성주의 문학과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창작적 실천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김성례는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여성의 몸으로 글쓰기의 한 유형으로 구술 이야기의 가능성을 거론한 점이 흥미롭다.⁷⁾ 김혜순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에서 '바리데기 본풀이'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텍스트로 해석하기에 이른다. 바리데기 텍스트가 지닌 산포의 형식을 여성적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본 것이다.⁸⁾ 김정란 역시 여성주의 시에 대한 활발한 비평과 여성적 글쓰기가 지니는 의미 해석을 통해 여성적 글쓰기의 이론화에 기여했다. 김정란은 『거품 아래로 깊이』 『말의 귀환』 등에서 권력과 유착된 타락한 거짓말의 거품을 걷어내고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자의 말', '미친 말'의 위상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김혜순과 김정란은 창작적 실천을 통해 그들의 이론을 보완하려는 노력

7)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1~31쪽.

8)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34~35쪽.

9) 김정란, 『거품 아래로 깊이』, 생각의나무, 1998, 260쪽. 김정란 『말의 귀환』, 개마고원, 2001,

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창작적 실천과 연구 및 비평 활동을 겸하고 있는 김혜순, 김정란, 김승희 등은 물론이고 김미현, 정끝별 등에 의해서 여성주의 시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여성 시인들의 시에 대해서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이미 몇 차례 분석이 이루어져 왔지만,¹⁰⁾ 여성적 글쓰기란 이런 것이다 라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여성적 글쓰기가 제도에 안착한 글쓰기가 아니라 제도에 저항하는 주변적이고 전복적인, 과정의 글쓰기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몸으로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문체적 차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과 충돌하고 겹치는 지점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문체적 차이에 대한 주목은 필요해 보인다. 논문의 3장에서는 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과 충돌하고 대중성의 허구를 비판한 사례를 여성주의 시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최승자, 김혜순, 김승희 등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변화된 대중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의 젊은 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적 글쓰기’라는 문제를 사유해 보았다. 여기서 여성 시인들의 시를 주로 다룬 것은 여성적 글쓰기라는 문체적 특징을 보이는 시가 여성 시인의 시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4장에서는 여성적 글쓰기를 표방해 오지 않은 시인들의 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여성주의 시를 드러내놓고 표방한 시인들의 작품이 의식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구축과 실현에 앞장서 온 반면, 대체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99쪽.

10) 김미현, 「여성, 말하(지 못하는) 타자」, 김경수 편,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 21, 2000; 정끝별, 「에로티시즘과 여성의 성」, 김경수 편,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 21, 2000;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새로운 세대의 여성 시인들에게서는 ‘여성적 글쓰기’를 의식하지 않는 문체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¹¹⁾ 이러한 특징을 ‘여성적 글쓰기’의 퇴행으로 볼 것인지 ‘(탈)여성적 글쓰기’로서 ‘여성적/남성적’이라는 이분법적 구획을 넘어서는 문턱의 글쓰기를 실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읽어보고자 하였다.

3.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 수용 전략-패러디와 현실 비판

최승자는 풍자와 조롱, 패러디의 전략을 활용하며 전통 서정시에서 억압되고 걸러진 여성의 목소리를 분출한 여성 시인이다. 그녀와 동시대의 시인으로 제국주의의 억압과 유혹에 좀더 직접적으로 저항한 고정희도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최승자의 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녀의 시가 대중문화의 코드를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고 폭로하는 특징을 거의 최초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적 글쓰기의 공과에 대해 논하면서 난해성에 대한 비판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현실을 상기할 때, 최승자의 시가 보여준, 대중문화의 전략을 활용해서 당대 현실의 천박함을 비판하는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툭툭 머리칼은 철사

11) 이에 대해서는 줄고, 『윤리의 외부, 차이의 문학』,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88~89쪽, 줄고, 『새천년을 여는 시의 세 가지 얼굴』,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351쪽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새들도 자본 자본 하며 올 날이 오리라.

(나에게 뽀스포 모단의 방식을 가르쳐 다오,
나는 왜 이렇게 정통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지.)

— 최승자, 「자본족」 부분

최승자의 시는 정전의 권위를 허무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크리스마스 캐롤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부터 지배권력, 종교, 서정시, 자연 등이 모두 시인의 풍자의 대상이 된다. 무사안일하고 때로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상의 뒤에 숨어 있는 파시즘에 시인은 일찌감치 주목하였다.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상품화해 버리는 자본의 막강한 힘과 지배 권력의 폭력에 대해 시인은 패러디를 통한 풍자의 방식으로 맞선다. 그런 점에서 최승자의 시는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유럽식 고급 아방가르드 문학보다는 대중적이고 중류문화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가깝다.

‘행복’과 ‘항복’이 모음 하나의 교체만으로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최승자가 시를 쓴 1980년대는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항복이 필요한 시대였고, 행복한 항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첩관을 깔아야만 했다. 구세주가 왕림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첩관을 깔아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은 가능했다. 「즐거운 일기」에서도 일상의 즐거움과 편안함 뒤에는 ‘코리아의 유구한 푸른 하늘’과 그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별 아저씨’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별 아저씨’는 ‘코리아’와 나란히 놓임으로써 동화 속이나 등장할 법한 낭만적 존재가 아닌 ‘별’을 단 군인 ‘아저씨’라는 의미를 얻게 되고, 즐겁고 무사한 일상 또한 사실은 ‘별 아저씨’에 의해 놀아난 것임이 폭로된다. ‘아짜라비아/ 도로아미타불’은 감탄사를 넘어서 ‘즐거운’ 일상의 최면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주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자본족」에서도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진, 아니 예술 역시 상품이 될 수 있고 돈으로 얼마든지 예술을 만들어내고 팔 수 있는 '자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풍자적 어조로 알리고 있다. 시 역시 '물건'이 되고 '그 까짓 거'가 되는 운명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새들도 자본 자본 하며 울 날이 오리라"에서 화자의 자조적 어조는 최고조에 이른다. 그녀는 정통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한 자본의 시대를 헤쳐갈 수 없음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세계의 문법을" "매번 배우지만 / 매번 잊어버"리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정처없이 지도를 어지럽히며 / 하염없이 시간을 혼선시키며 굴러다"(「주변인의 초상」)는 주변인의 삶의 방식은 들뢰즈가 말한 리즘적이고 유목적인 삶의 방식을 시인이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물어두었던 방귀들이 피어오른다
 잠든 땅에서 젖은 인형과
 녹슨 망치가 솟아오르고
 솟아오른 것들이 꿈틀거린다.

— 김혜순, 「꽃만 말고」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순간,
 폭설이 쏟아졌다
 그것도 모르고
 땅에 계신 우리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 아아 아버지
 목청껏 간구했다
 그러나 아무 목소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았다

— 김혜순 「함박눈」 부분

거울을 열고 들어가니
거울 안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거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그 거울 안에 외할머니 앉으셨고
외할머니 앉은 거울을 밀고 문턱을 넘으니
거울 안에 외증조할머니 웃고 계시고
[……]
청천벽력.
정전. 암흑천지
순간 모든 거울들 내 앞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며
깨어지며 한 어머니를 토해내니
흰웃 입은 삶 여럿이 장갑 낀 손으로
거울 조각들을 치우며 피 묻고 눈감은
모든 내 어머니들의 어머니
조그만 어머니를 들어올리며
말하길 손가락이 열 개 달린 공주요!

— 김혜순, 「딸을 낳던 날의 기억」 부분

김혜순이 이론화하고 창작적 실천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는 여성적 글쓰기는 크리스테바의 '코라'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김승희는 일찍이 김혜순의 시에서 코라의 로고스중심주의와 통사를 분쇄하는 운동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¹²⁾ 김혜순의 초기시에서도 풍자의 전략은 두드러지게 활용된다. 특히 '아버지'로 상징되는 남근중심주의에 대해 김혜순의 시는 풍자적 공격을 퍼붓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때로는 종교적 서사를 통해(「함박눈」), 그리

12) 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55쪽.

고 때로는 역사적 서사를 통해(「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전파되는데, 그녀 시의 주체들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장미로 역사 속에 살아있던 황산벌의 계백 장군을 “나이롱 저고 리 입고” “깡통 차고 늠름하게 펄럭”이는 ‘허수아비’와 등치시킴으로써 조롱한다.

풍자와 조롱의 대상은 남근중심주의의 상징인 ‘아버지’에 그치지 않고, 남근중심적 시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향한다. 생동하는 봄과 함께 꽃피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지만 꿈틀대는 현실의 풍경이다. 억압되고 억눌려왔던 말들, 꼭꼭 감추어 두었던 진실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꽃만 말고” 억압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분출되는지 눈여겨보라고 김혜순 시의 시적 주체들은 말한다. 그렇게 분출되는 것 속에는 물론 ‘여성의 말’과 ‘여성의 서사’가 들어 있다. 「딸을 낳던 날의 기억」에서 시적 주체가 하필 어머니,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로 이어지는 여성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이다. 태어난 태아 “손가락이 열개 달린 공주”는 “모든 내 어머니들의 어머니”의 역사를 거쳐 세상에 던져진다. 모계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던 역사는 전복된다. 김혜순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여성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여성적 글쓰기’를 선언한다. 이 시에 ‘판소리 사설 조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초기시에서부터 구어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김혜순의 시는 이후 자신의 시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을 점차 강화해 간다.

니나리치가 부른다
향기로운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크리스찬 디올이 부른다

불란서 멋쟁이로 꾸며 보겠다고
피에르 가르댕이 부른다
나이키가 부른다
엘리자베스 아덴이 부른다
환상 창조-이브 탄생
에스터 로테가 부른다
너, 나, 너를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세요, 속여요, 당신의 나이를,
오일 어브 오레이가 너를 부른다
랄프 로렌이 너를 부른다
캘빈 클라인이 너를 부른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너를 부른다

조지오 알마니의 페이지리 무늬의 메트레스를 구입하라고
랄프 로렌 침대 시츠
캘빈 클라인 포퓰리
게스의 기저귀 선반
다나 캐런의 티세트
크리스찬 디오르 디너 웨어
글로리아 밴더빌트의 야외용 가구

아,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
저렇게 많은 세계적 유명인들이
나, 나, 나를 부른다

— 김승희, 「제국주의가 간다」 전문

김승희의 시에 오면 문화 제국주의가 장악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좀더 강화된다. 문화 제국주의의 치명적 유혹에 의해 호명된 '나'는 상품화되면서

동시에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의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 자신의 가치도 따라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함정이다. 거짓말을 할 필요 없이 값비싼 화장품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으로 치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라는 유혹은 거짓과 헛것으로 가득한 글로벌 자본의 시대의 생리를 잘 보여 주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를 타는 대부분의 상품 광고들이 속고 속이는 기만과 유혹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누가 더 잘 속이느냐의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아무리 잘 꾸며도 제국의 여성이 될 수 없는 유색 인종의 여성들은 제국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되고 주변화된다. 흰 가면 뒤의 누런 얼굴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체로서의 '나'는 사라지게 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나'라는 환상에 불과하다

김승희의 시는 글로벌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광고의 어법을 빌려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감행한다. 거기에는 '제국-식민'의 논리와 '남성-여성'의 논리에 의해 동시에 억압받는 제3세계의 여성이 겪는 이중고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다. 광고라는 대중매체의 글쓰기를 빌림으로써 김승희 시인이 노리는 것은 결국 탈식민의 시대라 불리지만 여전히 제국주의가 팽배한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이다.

최승자, 김혜순, 김승희 등으로 대표되는 1세대 여성주의 시인들의 시에서 대중문화의 수용은 정전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남근중심적 목소리에 의해 억압되어 온 주변적이고 탈중심적이고 여성적인 목소리를 되살리기 위해 주로 이루어졌다. 대중문화가 지닌 대중성은 기성의 권위에 도전하고 기성의 문법을 전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용된 것이다. 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과 만나는 이러한 특징은 1세대의 뒤를 이어 여성적 글쓰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성 시인들, 김정란, 신현림, 박서원, 김연희 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패러디를 통한 풍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관능성과 환상성이 여성적

글쓰기와 결합하는 예도 자주 발견된다. 관능성과 환상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여성적 글쓰기가 노리는 바도 대개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남근 중심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패러디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4. (탈)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수용 전략-디지털 서사의 가능성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이 이루는 접점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90년대 이후 여성주의 시는 양적인 면에서나 담론의 생산이라는 질적인 면에서나 한국 현대시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에 들어서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거대 담론이 약화되면서 탈중심적이고 주변적인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여성적 글쓰기’, ‘몸으로 글쓰기’는 90년대의 지배적 담론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다.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구술적이고 비선형적이고 상호텍스트적인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자폐적이고 몽상적이라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자기 세계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여성적 글쓰기는 대중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 즈음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시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앞 세대와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 준다. 앞 세대의 여성 시인에게서 여성 주체의 목소리가 강조되어 온 데 비해 새로운 세대의 여성 시인들에게서는 여성 주체로서의 성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필자는 ‘제3의 성의 목소리’나 ‘중성적 목소리’로 부를 수 있을 거라는 견해를 앞서 제시한 바 있는데,¹³⁾ 이 논문에서는 여성 주체에 의해 쓰여졌으면서도 여성성으로부

13) 참고 『새 천년을 여는 시의 세 가지 얼굴』,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351~352

터 벗어나 있는 이러한 시들을 ‘(탈)여성적 글쓰기’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징이 새로운 대중성의 수용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서사의 수용은 문학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시의 경우 다른 장르에 비해 디지털 서사의 수용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양방향성과 다매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의 특징¹⁴⁾은 디지털 문학은 물론 디지털 문학의 속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에서 문자, 소리, 영상은 각 매체의 고유성에 상관없이 질적 성격이 표준화되고 중성화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디지털 문학의 대중성과 접점을 형성하는 여성주의 시가 ‘(탈)여성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탈)여성적 글쓰기’의 이러한 변화와 관련지어 읽을 수 있는 시인으로는 이원, 김행숙, 진은영, 이장욱, 유형진, 정재학 등이 있다. 이장욱, 정재학은 남성 시인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성적 글쓰기를 여성 주체가 쓴 글쓰기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시인의 생물학적 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탈)여성적 글쓰기’가 대중성과 이루는 접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는 이원의 시이다.

잉크 냄새가 났던 조간신문을 펼치는 대신 새벽에
무한의 인터넷을 가볍게 따닥 클릭한다
신문 지면을 인쇄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PDF 서비스를 클릭한다
코스닥 이젠 날개가 없다
단기 외채 총 500억 달러

쪽, 졸고, 『윤리의 외부, 차이의 문학』,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88~89쪽.
14) 박유희, 「디지털 서사 논의의 현황과 전망」, 『우리어문학회 2005년 동계 학술 발표회 발표논문집』, 우리어문학회, 2005.2.17, 68쪽.

클릭 한 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한 세계가 일어선다
해가 떠오른다 해에도 칩이 내장되어 있다
미세 전극이 흐르는 유리관을 팔의 신경 조직에 이식
몸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컴퓨터가 받는다는
12면 기사를 들여다보다
인류 최초의 로봇 인간을 꿈꾼다는 케빈 워윅의
웹 사이트를 클릭한다 나는 28412번째 방문객이다
나도 삽입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다
마우스를 둥글게 감싼 오른손의 검지로 메일을
클릭한다 지난밤에도 메일은 도착해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k가 보낸 첨부 파일을 클릭한다
붉은 장미들이 이슬을 꽃잎에 대롱대롱 매달고
흰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다
k가 보낸 꽃은 시들지 않았다
곧바로 나는 인터넷 무료 전화 dialpad를 클릭한다
k의 전화번호를 클릭한다
나는 6589 마일리지 너머로 연결되고 있다
나도 누가 세팅해놓은 프로그램인지 모른다
오른손으로 미끄러운 마우스를 감싸쥐고 나는
문학을 클릭한다 잡지를 클릭한다
문학 웹진 노블 4월호를 클릭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지의 어린 왕자는
자꾸자꾸 풍경을 바꾼다 창을 조금 더 열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클릭한다 신간 목록을 들여다보다
가격이 20% 할인된 폴 오스터의
우연의 음악과 15% 할인된 가격에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을 주문 클릭한다
창밖 야채 트럭에서 쿵쿵거리는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작 쿵작 쿵차자 쿵작
 나는 뽕짝 네 박자를 끼입고 트럭이 가는
 길을 무심코 보다가 지도를 클릭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길 하나를 따라가니 화업사에
 도착한다 대응전 앞에 늘어진 동백 안에서
 목탁 소리가 퍼져 나온다 합장을 하며
 지리산 콘도의 60% 할인 쿠폰을 한 매 클릭한다
 프린터 아래의 내 무릎 위로 쿠폰이 동백 꽃잎처럼 푹 떨어진다 나는
 동백 꽃잎을 단 니를 클릭한다
 검색어 나에 대한 검색 결과로
 0개의 카테고리
 177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
 나는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를 찾아 차례대로 클릭한다
 광기 영화 인도 그리고 나.....나누고
나오는...나홀로 소송.....또나(주)...
 나누고 싶은 이야기.....지구와 나.....
 따닥 따닥 쌍봉낙타의 발굽 소리가 들린다
 오아시스가 가까이 있다
 계속해서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이원,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전문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새로운 디지털 세대의 존재론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성적인 이름을 가진 이 시인의 시는 시인의 성별에 대한 정보 없이 읽는다면 특정한 성적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시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에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거론되어 온 비선형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비선형성은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원의 시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적 글쓰기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성이 수용되고 있다. 물론 그녀의 시도 궁극적으로는 매체의 변화

가 사회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추동하는 시대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고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얻고 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상호 소통하는 모습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다. “클릭 한 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 한 세계가 일어”저는 일이 가능한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 않는다. 클릭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마침 창밖 야채 트럭에서 들려온 빵작 음악 같은 우연 역시 세계의 붕괴와 창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대를 익숙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역사의 필연성이나 변혁에 대한 믿음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화엄사를 찾아가는 여행길 역시 “무심코” 이루어진 것일 뿐 경건함과 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인터넷의 광활함은 때로는 얼마나 막막한 것인가? 검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자랑하는 인터넷의 검색 시스템이 얼마나 불명확하고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원의 시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검색 시스템에서 나를 찾는 일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일만큼이나 막막하게 여겨진다. 그녀의 시는 고정된 주체로서의 '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클릭함으로써 존재하는, 늘 진행 중에 있는 '나'라는 새로운 시적 주체를 선언한다. 이러한 시적 주체의 선언은 우연적이고 비선형적인 디지털적 글쓰기의 특성을 받아 들인 (탈)여성적 글쓰기의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

조용한 산사 뒷마당에 누워 그늘 밑 쥐구멍 옆에서 잠을 청한다
먹을 것 없는 절간의 쥐가 들락거리는 이 길은 블랙홀일지 모른다
스님의 법복자락을 스치던 소슬한 풍경소리 내 등을 쓸고 간다
나는 절에 사는 쥐를 따라 검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처음 세상으로 나오던 통로처럼 까맣고 좁은 길
 나는 길고 매끄러운 뱀이다
 달아나는 쥐는 박차가 달린 구두를 신고 있다
 통로가 끝나는 곳은 아열대의 늪지대
 늪지의 저 끝에는 사냥꾼이 시거를 피우고 있다
 박차가 달린 구두를 신은 쥐는 보이지 않고
 나는 시거를 피우는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물소다
 사냥꾼이 지나가는 새에게 한눈을 펴는 사이 나는
 그의 허리를 찌르고 달아난다
 나의 뺨에는 사냥꾼의 선지가 선인장의 꽃처럼 달려있다
 나는 달리고 또 달린다 선인장 꽃이 시들어질 때 나는
 아프리카의 비팔로, 배고픈 표범, 이집트 공주의 애완 동물이다
 삼십육만오천한번째의 석양을 보았을 때 나는 공주 걸을 떠난다
 한번 넘으면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고개를 지나
 비가 오는 숲길로 접어들면 나는 꿈꾸는 고사리다
 참나무 옆에 웅크리고 있던 나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 떨어트리고 간 조약돌
 냇물에 잠긴 계절풍이다
 나는 17세기 스페인의 항구
 눈부신 범선의 돛대,
 깃발에 펄럭이는 바람이다

— 유형진, 「나는 17세기 스페인의 항구 눈부신 범선의 돛대,
 깃발에 펄럭이는 바람이다」

인용한 유형진의 시는 비선형적 글쓰기의 예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매끄러운 뱀처럼 미끄러지듯 달아나는 시적 상상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으로 비약하고 있다. 그 방향에 뚜렷한 목적지 같은 것은 없다. 선형적이고 선조적인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상상력의 전개는 리즘적 글쓰기의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 준다.

이 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새롭게 던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답한 새로운 세대의 시적 주체의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시들과 달리 이 시에서는 하나의 초점 대상으로서의 ‘나’를 추구하지 않는다. 연쇄와 확산의 방식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 시는 대답 자체라 는 목적지보다는 대답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질문을 던지는 과정과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는 앞서의 시인들과는 ‘다른’ 시적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 속의 ‘나’는 ‘뱀→물소→버팔로→표범→이집트 공주의 애완동물→고사리→조약돌→계절풍→17세기 스페인의 항구 눈부신 범선의 돛대→킷발에 펼쳐이는 바람’으로 거듭 변이한다. 그 변이에서 논리적 과정이나 의미의 맥락을 찾아내는 것은 힘들다. 말소리의 연쇄와 문장의 연쇄가 자아내는 자유로운 연상 작용에 힘입어 상상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는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끝인가 싶으면 그로부터 다시 상상력이 촉발되어 변이를 거듭한다.

이 시의 상상력은 전래 동화를 비롯한 동화적 상상력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장화 신은 고양이」, 「헨젤과 그레텔」, 「이집트 왕자」 등의 동화에서 유추된 상상력이 이 시의 밑에는 흐르고 있다. 조용한 산사 뒷마당에 누워 잠을 청하던 화자가 쥐를 따라 검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앨리스’를 연상시키며, 박차가 달린 구두를 신고 달아나는 쥐는 ‘장화 신은 고양이’의 모습을, “길을 잃은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조약돌”은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헨젤과 그레텔’이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이집트 공주는 ‘이집트 왕자’를 각각 연상시킨다. 그런데 전래 동화들은 조금씩 비틀어지거나 어긋나 있다. 앨리스의 토끼가 쥐로 변이되고, 장화 신은 고양이 대신 구두를 신은 쥐가 등장하고, 이집트 왕자 대신 공주가 등장한다.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은

것은 조약돌을 떨어뜨렸을 때가 아니라 빵조각을 떨어뜨렸을 때이다.¹⁵⁾ 동화적 상상력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이미 익숙한 전래 동화와 같은 멋진 결말이나 그럴 듯한 마무리를 이 시는 보여 주지 않는다.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화를 비트는 방식 역시 대중성의 수용과 관련지어 읽을 수 있다. 연쇄를 통한 의미 확장의 마지막 도달점은 결국 바람이다. 손에 잡히는 형체가 없고 다만 움직임으로써만 스스로를 증명하는 바람이야말로 이 시의 자유로운 변이의 상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처럼, 논리의 비약이 심한 꿈이나 무의식처럼 이 시는 자유자재한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유형진의 시는 말소리의 연쇄를 극대화한 새로운 실험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주체에 포획되지 않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로 의미를 확장해 간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는 분명 여성 시인이지만, 어디서도 표 나게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시는 '탈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시가 보여 주는 비선형적 언술 특성은 궁극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과 맞물린다. 다시 말해 유형진의 시는 '탈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넓은 의미의 여성적 글쓰기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유형진 시의 특징을 이 논문에서는 '탈여성적 글쓰기'라고 지칭하였다. 이와 같이 이원, 유형진 등의 시는, 영상매체와 인터넷 같은 대중 매체에 더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는 비선형성이나 양방향성을 '여성적 글쓰기'의 틀 안에서 규정짓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를 남긴다.

15) 줄고, 「윤리의 외부, 차이의 문학」,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94~95쪽.

5.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접속 가능성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적 글쓰기는 주류의 글쓰기에 대한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글쓰기를 형성하면서 대중성과 접점을 형성해 왔다.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이 충돌하고 겹치며 형성해 온 길항 관계는 문학의 위상이 점점 변화될 것이라 예견되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이상 ‘여성시’라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커져 가고 있다. 여성적 글쓰기가 ‘(탈)여성적 글쓰기’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도 남성생/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구획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에 대항하고 비판하는 의미에서의 여성성, 중심적이고 주류적이고 기성적이고 남근 중심적인 글쓰기에 대항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여성성을 표 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탈)여성적 글쓰기도 광의의 ‘여성적 글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물학적 성차와 그로 인한 차별을 강조하는 글쓰기는 젊은 여성시인들에게는 더 이상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1세대 여성주의 시인들에 의해 규정되어 온 ‘여성적 글쓰기’는 대체로 패러디 등을 통한 풍자적 공격성이라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전략이 공격적이고 전복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분법을 뒤집는 이러한 전략이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분쇄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남/녀’, ‘제1세계/제3세계’라는 이분법에 의해 억압·착취 당해 온 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원, 유형진, 진은영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들이 추구하는 글쓰기가 앞서의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분쇄하는 ‘(탈)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학의 비선형적이고 양방향적이고 다매체적인 특성은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적 특징과 접점을 형성한다. 이들은 좀더 가볍고 발랄하게 디지털 글쓰기의 ‘대중성’과 접속하면서 ‘여성적 글쓰기’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시가 우리 시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 줄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본다.

K C I

참고문헌

- 강명규.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1996.
- 강현두. 『대중문화론』. 나남, 1994.
- 김미현. 「여성, 말하(지 못하)는 타자」. 김정수 편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1, 2000.
-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정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 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제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김정란. 『거품 아래로 깊이』. 생각의나무, 1998.
- 김정란. 『말의 귀환』. 개마고원, 2001.
-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 박윤희. 「디지털 서사논의의 현황과 전망」. 『우리어문화회 2005년 동계 학술 발표회 발표논문집』. 우리어문화회, 2005.2.17.
- 윤재근. 「예술과 대중사회의 연관에 관한 연구」. 『한양어문연구』 15집. 한양어문화회, 1997.
- 이경수. 「새천년을 여는 시의 세 가지 얼굴」.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 이경수. 「윤리의 외부, 차이의 문학」.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 이경수. 「타자성의 맨얼굴」. 『작가와비평』 2호. 2004.11.
-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문학』. 2001년 겨울호.
작가와비평 좌담. 「21세기, 문학의 진보성이란 무엇인가?」. 『작가와비평』 2호. 2004.11.
- 정끝별. 「에로티시즘과 여성의 성」. 김정수 편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An Essay on Ecriture Feminine and Popularity

Lee, Kyung-Soo

This study is associated with a project to consider the issue of popularity with respect to *écriture féminine*, which has been discussed as methodology of feminist literatu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écriture féminine*, because it is considered to provide us with ultimate way to solve and overcome the matter of popularity in the feminist poetry in terms of methodology of creation.

This study extends the meaning of *écriture féminine* beyond the creation of poetry conducted by women to any works that takes feminist attitudes or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écriture féminine* resistant against existing institutional writing practices. We also emphasize dual aspects of popularity in this study. By stressing compulsion contained in popularity and qualitative changes functioning as criticism and subversion to mainstream culture, we aimed to find how *écriture féminine* can earn popularity, keeping in mind the popularity of popular arts comprised of humor, sentimentality, sensation, sensuality, illu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poems published since the 1980 as examples of *écriture féminine* in order to suggest that characteristics of literary style seen in *écriture féminine* can serve as a critical alternative for existing institutional way of

writing in connection with changed inclinations of the public.

Écriture féminine has related itself to popularity through resistant and alternative writing practices to the mainstream. Antagonistic relationship, which écriture féminine and popularity have developed each other through conflicts and overlaps is considered to remain further in the future, even though some predict that the topology of literature will change as time goes by. 'Écriture féminine' defined by the first generation of feminist poets has often employed the strategy of sarcastic aggressiveness such as parody. While such strategy has played an aggressive and subversive role, it is clear that such strategy against dichotomy has been not highly successful in excluding dichotomy fundamentally. It is interesting to witness a new generation led by Lee Won, Ryu Hyung-jin, Jin Eun-young, because their way of writing shows potentials of '(post) écriture féminine' to fundamentally eliminate dichotomy mentioned earlier. Given non-linear, interactive, and multimedia characteristics of digital literature, their writing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literary style of 'écriture féminine' in a broader sense. Those women poets symbolically show us that 'écriture féminine' moves in a different direction, by connecting with 'popularity' of digital writing in a significantly light and pleasant manner. Although it will take some more time to expect how their poetry will suggest possibility to the Korean poetry, it is plausible to predict that they will possibly lead us to a new phase we have never experienced so far.

Key Words

écriture feminine, popularity, feminist literature, alternative writing, sarcastic aggressiveness, (post) écriture feminine, non-linear, interactive, multimedia

* 위 논문은 4월 10일 투고되어, 5월 27일 심사 완료 후, 6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